

Preface, 1981 by Cherríe L. Moraga to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 (expanded and revised third edition) edited by Cherríe L. Moraga and Gloria E. Anzaldúa (Berkeley: Third Woman Press, 2002), xliv-li.

원어는 소제목과 일부 개념어, 인명, 음차한 단어, 의역한 단어, 중의적인 단어, 두문자가 대문자로 표기된 단어 등에 병기했다.

[,]로 표시한 삽입 중 위치자로 된 것은 옮긴이의 부연, 나머지는 원문의 것이다.

『나의 등이라 불리는 이 다리』 1981년 서문

체리에 L. 모라가 Cherríe L. Moraga

변화는 진공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서문에서는 독자를 위해 유색인 여성으로서 내가 겪은 투쟁, 의식 고양, 그에 따른 정치화의 여정과 전망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다. 이 선집과 그에 글을 실었거나 그 주위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 삶을 — 때로는 꽤나 고통스럽게, 그러나 언제나 풍부함과 의미를 갖고서 — 변화시켰는지를 있는 그대로 되짚어 보려 한다.

갈아타고 지하로 간다¹ Transfer and Go Underground

(매사추세츠 보스턴 - 1980년 7월 20일)

여기서 이 책이 하나로 묶여 오고 있는 방식, 이 책이 나를 실어 가고 있는 여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 아직 이 책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고 나는 출판사를 찾아 동부에 다녀왔다. 요즘은 이런 선집에 대한 수요가 높다. 급진적인 유색인 여성들의 책. 여성에 대한 후들후들하고 누덕누덕한 헌신의 기록을 가진 좌파가 이를 필요로 한다. 그 거면 끝이다. 그래, 이거면 남자들에게서 체현되는 “인종^{color}” 문제에 주의를 끌 수 있다. 백인 좌파 출판사에게 성차별주의는 용인할 수 있는 일이다. 흑인 남성의 입에서 터져 나온다면 특히나.

페미니즘 운동도 그런 책을 필요로 한다. 이유는 다르다. 페미니즘 운동 백인 분파 사이에 퍼지고 있는 지루함에 대해 어디 한 번 말해볼까? 심신의 굽주림이라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너무 쉬운 해법 속에서, 한때는 최첨단이었던 것이 갈수록 무뎌져 간다. 레즈비언 분리주의 유토피아? 됐어요, 언니들. 매사추세츠 워터타운의 백인 주택지구를 떠나 흑인들의 록스베리로 가는 T라인을 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혁명 문건이나 준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속으로나 하는 생각이지만, 보스턴만 보자면, 소위 내 자매들이 쌓아 온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내가 이 동네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워터타운을 나서면 버스에 올라 밝은색 살결로 하버드 광장까지 평온히 타고 간다. 이 끔찍한 열기 속에서, 내 머리칼이 모욕 같이 감히 받아 쓰는 금빛 반짝임의 보호를 받으며.

갈아타고 지하로 간다.

며칠 전 줄리^{Julie}는 주택지구를 산책하다 가로막힌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른다. 그저 이곳을 돌아다니는 게 흑인이란 것만 알 뿐. 여기에서는 그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지하로 다니면.

전철이 갑자기 멈춘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백인이 내가 타고 있는 차량에 쳐들어 와서는 흑인 청년 하나를 문간에 내던지고 수갑을 채워 데려간다. 전철이 다시 움직인다. 열네 살 흑인 소년이 백인 경찰에게 머리에 총을 맞은 다음날이다. 그리고, 여름은 점점 달아오른다.

이 동네에 레즈비언 혁명을 계획하는 여성들 몇이 있다고 한다. 머리에 총을 맞은 소년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워터타운에서 록스베리로의, 백인^{white}에서 흑인^{Black}으로의 이동을 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원한다. 나는 어디까지나 여성을 사랑한다. 당연한 일이다.

록스베리에 도착하면, 바바라네에¹ 도착하면... 함께 한 첫 방문날 저녁, 바바라가 응접실로 들어온다. 그녀가 내 잠자리를 준비해 둔 곳이다. 그녀는 내게 입을 맞춘다. 이윽고 내 어깨를 잡으며 결연히 말한다. “우린 자매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몸을 누이고는 이 자매라는 말이 좋아서 잠들기까지 두 시간을 데굴거린다. 바바라에게서 받은 것이다. 우리 — 치카나^{Chicana}와 흑인 — 사이에 서로를 자매로 여기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게 당연하지는 않다. 자꾸만, 다르다는 것의 아픔과 충격, 같다는 것의 기쁨, 말로 다 못할 난관을 거쳐 이룬 만남의 흥분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또 말하고^{repeat} 싶다.

그러나 이 감^{passage}은 거치는^{through} 것이다. 위로도 옆으로도 주위로도 아닌, 거쳐서다. 이 책 — 나로서는 거쳐 감^{passage through}으로 여기는 — 이 유색^{colored}이든² 흰색이든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의 사랑과 삶이라는 사실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로사리오 모랄레스^{Rosario Morales}의 논박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색과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나는 절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레즈비어니즘은 허위, 사기다. 내겐 별볼일 없다. 레즈비어니즘은 이어짐^{connection}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나를 정치로 이끈 것은 여성에 대한 사랑, 내 가족인 이들에게 채워진 빈곤과 억압이라는 족쇄를 보며 느낀 빠져진 아픔이었다. 하지만 내가 겪은 가장 깊은 정치적 비극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여성에 대한 이 헌신이 그야말로 은총, 그야말로 맹목적인 믿음과 함께 어떻게 점차 배제적이고 반동적으로 되어갔는가 하는 데에 있다. 나의 백인 자매들이여, 말해 보시라.

그런 것에는 질렸다. 또한 이 책에 함께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 나의 벗 앰버 홀리보우^{Amber Hollibaugh}의 말대로 — 마침내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며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줄 아는 운동 속에서 다시금 기운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다리가 건너진다^{A Bridge Gets Walked Over}

(매사추세츠 보스턴 - 1980년 7월 25일)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됐다. 준비가 됐다. 너무 피곤하다. 밤새 자지 못했다. 집이 그림다. 이 아침, 내 몸은 깊은 피로에 젖어 있다. 소진된 기분이다. 에이드리엔^{Adrienne}이 여기 보스턴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을 글로 쓸 수 있을지를 묻는다. 써 주지 않겠느냐고 아니라 쓸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말한다. 그리고는 의심스러워 한다. 인종주의, 계급주의의 고통. 그다지도 남용되고 하찮게 된 말들. 그 모든 것의 고통. 인종주의에 상처 받는 것이 유색인만은 아니니라.

또 미팅. 다시 한 번 백인 여성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간다. 방 주위에서 우왕좌왕하는 유색인 여성들. 상정된 안건, 인종주의^{Racism}. 방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백인이건 유색인이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두껍게 바른 본드처럼 얹어져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는, 우리, 방에 든 제3세계 여성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 이번에는 — 우리 몸을 찢겨진 역사의 강 위로 던져져 틈을 때우는 데에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지난밤 바바라의 말이다. “한 다리가 건너진다.” 그래, 몇 번이고 또 다시 건너진다.

1 바바라 스미스^{Barbara Smith}가 자매로서 준 응원과 정치적 행동주의자이자 선지자로서 준 간-파^{in-sights}에, 그리고 특히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 그녀의 말들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2 편집자들은 이 책 전체에 걸쳐,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모든 제3세계 유색인^{people of color}을 가리켜 “colored”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백인 여성들이 눈앞에서 쪼그라드는 것을 본다. 주장의, 자신감의 유동성을 잃고 “인종^{race}”이라는 말, “피부색^{color}”이라는 말 앞에서 어색하게 멈춘다. 이 휴지들은 내내 목소리를 숨가쁘게, 몸을 뻗뻗하고 곤두서게 — 깊이 숨쉬고 웃고 절망으로 신음하고 후회로 울지 못하게 만든다. 계속해서 내 몸이 건너져 잇게 만드는 데에 쓸 수 없다. 오늘 아침엔 내 몸의 모든 관절이 긴장되어 있음을 느낀다. 낡았다.

나는 대체 스스로를 어디로 집어 넣고 있는가? 이번 출장 내내 글로리아^{Gloria}의 목소리가 맴돈다. 한 해 반 전, 그녀는 내게 경고와 격려를 했다. “이 책은 네 삶을 바꾸어 놓을 거야, 세리. 우리 둘의 삶을 모두 바꾸어 놓을 거야.” 그래, 그랬다. 글로리아, 네가 여기 있었더라면.

며칠 전, 오랜 친구 하나는 내게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하얗게 보였는지를 말했다. 나는 백인에 가깝다는 ^{feel more white} 느낌이 있었다고, 솔직히 답했다. 있잖아, 정말로 그랬어. 하지만 이번 출장을 와서, 어젯밤 미팅에서 백인 여성들을 상대하며, 정말이지 어둡게^{dark} 느껴졌다. 분노로, 침묵으로, 건너지는 느낌으로, 어둡게.

일기에 이렇게 썼다. “유색인 여성으로서의 내 고양되는 의식은 정말로 내 경험을 변형시키고 있는 듯하다. 다른 유색인 여성들과 느낌을 함께 할^{feel with}수록 스스로를 더욱 더 치카나로 느끼게 된다, 인종주의적 공격에 더욱 더 예민해진다. 어쩔 이럴 수 있는지!”

돌파의 자리: 집으로 돌아오기^{A Place of Breakthrough: Coming Home}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 1980년 9월 20일)

오드리 로드^{Audrie Lorde}는 인종주의에 대해 말하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속에 있는 지식의 저 깊은 자리에 가닿아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차이의 공포와 증오를 건드릴 것을 촉구한다”고 쓴다.³ 내가 그리 하려 하게 되는 것은 내 몸 속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내게 큰 장애물이 나타난 것은 내가 이 책을 나 자신으로부터^{for myself} 쓰기를 멈추었을 때, 나 자신의 지식의 원천으로부터 눈을 돌렸을 때였음을 이제는 안다.

오드리가 옳다. 그것은 또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 여성들 사이의 분리가 내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차이를,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여성들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때로 나를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여기서 나는 내 자매를 생각한다. 그녀가 — 내가 하게 된 이 여행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 이 백인 남자와 결혼한다니 하는 충격을 어찌서 아직도 이겨내지 못했다. (한평생을 아버지와 오빠를 돌보고 시중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 받은 모델이다. 남자 하나가 방에 들어오면 라틴계-여성으로부터-남성을-향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얼마나 주목을 받는지[응석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러 해를, 그리고 오늘까지도, 나는 여전히 내가 자라는 동안 삶의 매일을 함께 있었던 — 함께 자고 먹고 이야기하고 울고 일하고 싸웠던 — 이 소녀/이 자매가 이 남자와 결혼을 통해 갑자기 사라졌다는 실망감에서 다 회복되지 못했다. 여전히 나는, 내게 내 감정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분리를 부정하는 것, 이 해묵은 유기, “한 여성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애도한다는 것이 “미성숙”하거나 “이상^{queer}”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과 고전하고 있다.⁴ 자매들 사이의 유대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는 아는 사람만 안다. 나는 내 자매에게 의지하도록, 자매란 “고된 긴 길을 당신과 함께 갈” 거라고 확신해도 좋다고 믿도록 길러졌다.

이따금 내겐, 오드리가 말하는 “지식의 저 깊은 자리”가 끝없는 고통의 저수지, 내게 가해진 위해를 계속해서 들추어야만 하는 곳인 듯 보인다. 위해의 계산된 체계, 다른 여성 — 그러나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장 다르게, 그러므로 두렵게, 여기도록 배운 이들 — 으로부터의 우리의 분리를 보증하도록 의도된 체계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

³ “The Master’s Tools Will Never Dismantle The Master’s House”에서 (이 책에 실린 그녀의 글을 보라).

⁴ Adrienne Rich, “Transcendental Etude,” *The Dream of a Common Language* (New York: Norton, 1978), 75.

자신의 것으로 보고 싶지 않은 여성들. 인종주의, 계급 억압, 남성들, 혹은 다이크 모욕^{dyke-baiting}, 뭐가 됐든, 체계는 변성한다.

이러한 위해로 읽은 내 친구들, 연인들을 애도한다. 나 스스로의 무지로, 나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인해 배신했던 여성들을 애도한다.

올해가 그런 깊은 위해의 해였다. 두 손 사이에서, 내가 믿은 사랑을 삶에 되돌리는 데에 실패했음이 느껴졌다. 그래, 연인간의, 자매간의, 모녀간의 실패 — 배신. 공적인 권력을 위해서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든 사적인 효력을 위해서든 혹은 보다 가까이하는 얼굴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피부들을 지키기 위해서든,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가 — 다리의 붕괴.

“그것이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⁵ 오드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안다, 눈과 입과 손을 열어 내 두려움의 색과 질감에 이름을 붙여야만 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나 이 선집을 만들려 하게 되었었는지를 거의 잊어버릴 뻔 했다. 다른 여성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인종주의를 다루고 싶었다는/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릴 뻔 했다. 나의 레즈비언을 그토록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를 처음으로 선명히 느낀 것은 나를 무시하는^{ignored} 것 같았던, 내 이름을 고쳐버렸던 흑인 여성들 — 흑인 다이크들 — 에게서였다. 내가 백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내가 흑인 여성들을 친밀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바바라는 “네가 누구랑 같이 앉을 수 있는지, 누구랑 같이 울 수 있는지, 누구의 얼굴을 만질 수 있는지에 관한 거야” 하고 말한다). 잠재적으로 우리는 이어져 있다는 정말로 강한 “유색의^{colored} 예감”을 갖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대부분의 흑인 여성들의 삶에서는 빠져 있었다. 무지^{ignorance}. 고통스런, 고통스런 무지.

나는 심지어 내가 치카나나 다른 라티나^{Latina}들과 혈통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 무시했다. 아마도 제대로 보기에 너무 가까웠다. 찢릴 만큼 가까웠다. 몇 달 전 일기에는 이렇게 썼다. “내가 삶에서 다른 라틴 여성들에게 사랑 받기를 얼마나 깊이 원하는지를 알아버리는 것이 무섭다.” 진정 절실히는 부재를 느껴 본 적이 없었다 (규범적인 것으로서 앵글로^{anglo} 여성들에게 자주도 느끼는 소외의 가닥들을 짐작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종주의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며 처음으로, 내가 놓쳐 왔던 것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었다. 그때 첫 줄에는 격려와 동일시를 담아 고개를 끄덕이는 다섯 명의 라티나 자매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면면을 보라! 다섯 명의 자타공인 라티나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호^{Jo}, 아우로라^{Aurora}, 차벨라^{Chabela}, 이^{y[그리고]} 미르타^{Mirtha}. 평생에 처음으로, 내 몸의 모든 마디마디가 한 시에 한 곳에서 보여지고 말해지도록 허락되었다.

포럼을 마치고 우리 여섯은 스페인어로 노래를 부르며 발렌시아 거리를 걷는다. “라 콤브레^{La Cumbre}”에서 부리토스 이 세르베사^{burritos y cerveza[부리토와 맥주]}를 사고 밤이 깊도록 떠들어 댄다, 그야말로 재회에 감격해 울면서.

씨, 손 미스 꼬마드레스^{Si, son mis comadres}.⁶ 내 어머니가 그녀의 여자 친구들이나 자매들과 맺었던 무언가. 집으로 돌아오기. 레즈비언이 될 것인지 치카나가 될 것인지, 페미니스트가 될 것인지 가족을 가질 것인지, 하나를 택하지 않아도 된 건 처음이었다.

다리를 꿈꾼다¹ have Dreamed of a Bridge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 1980년 9월 25일)

이걸로 2년째, 문자 그대로 나는 다리를 꿈꾼다. 지금 이 결론을 쓰면서 나는 내 속에 사는 무수한 목소리들과 싸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펜을 멈춰 세우는 목소리들. 유색인 여성의 억압에 대해 보다 “유물론적으로” 이야기

⁵ “The Master’s Tools Will Never Dismantle The Master’s House”에서 (이 책에 실린 그녀의 글을 보라).

⁶ [웁긴이 주] 그래, 그들이 나의 꼬마드레[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여자 친구]들이다.

해야 한다고, 제3세계 혁명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은 것은 믿음 faith에 관한 것이다. 믿음 없이는 내가 감히 잠재적인 배신과 거부, 이어짐의 몸짓 처음부터 끝까지에 내내 도사리고 있는 실패에 스스로를 내어놓지 못하리라는 것.

그럼에도 나는 너무도 자주, 피로 알고 있는 순전한 믿음의 끈을 놓친다. 내 어머니. 어떤 아주 기초적인 층위에서 말하자면, 여성은 그녀가 걷는 땅으로부터 흔들려질 수 없다. 이 책을 작업하던 중 한 번은 어떤 매우 위태로운 시점이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 사람들, 글쓰기, 사는 곳 — 이 내 위로 무너진 때였다. 크나큰 절망과 자기 의심을 느끼는 가운데 어머니가 편지로 보낸 카드 하나를 받았다. 그녀의 수호성인, 그녀의 “특별한” 성인인 파두바의 성 안토니우스 기도카드가 비닐 포장에 싸여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체리에. 성 안토니우스의 기도를 보낸다. 주님께서 네 책을 도와 달라는 기도.” 그리곤 속에서 내가 몇 달을 깔고 앉아 있었던 울음이 터져 나를 씻어 냈다 — 믿음의 치유자. 이 성인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실제로 한 번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 그날은, 내가 이 책이라는 노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떤 게으른 믿음, 머리 위로 든 두 손이나 가슴팍에의 악독한 매질이라는 우리 삶에서 스스로를 비극적인 분열들 속으로 물리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변화시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낼, 우리의 목숨을 구할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지 않을 바에야 어째서 이런 책을. 내가 말하는 것은 행동주의자의 믿음이다.

이 책에서 유물론은 이 여성들의 삶의 살^{flesh} 속에 살아 있다. 하루의 끝에 뺏속부터 느껴지는 기진함, 모욕당할 때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불길, 배신당할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칼날, 무서울 때 뺏속에서 느껴지는 오심, 심지어는 만져지고 싶을 때 다리 사이에서 느껴지는 허기까지도.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 — 같은 편이라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의 피부, 성별, 섹슈얼리티가 어떻든) 매일같이 결정/감수하며^{deciding/risk} 우리가 무엇이 언제 말해져야 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래야 하는지를 견주고 재는 방식 — 이 우리의 전략이다. 우리는 상충하는^{contradict} 여성들이다.

이 책은 여기에 글을 실은 모든 여성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닿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쓰였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저 꿈에서만 서로를 알았던, 믿음을 현실로 만들고 우리 자아들이 전부 그 현실에 전력을 다하게 하고자 이 페이지들 위에서 한데 모인 한가족이다.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투쟁에 관한 책이다. 친밀함, 우리 모두의 가운데에 있는 삶에의 욕망에 관한 것,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국면에서도 자유에 못 미치는 것에는 안주하지 않는 것에 관한 책이다. 어떤 총체적인 전망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 함께 한 여성들을 위해 나는, 그 전망을 위해 내 몸을 놓을^{lay} 것이다. 나의 등이라 불리는 이 다리를.

꿈 속에서 나는 늘, 강가에서 마주친다.

체리에 L. 모라가